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김승욱 (발행인)

동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보기"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난해에 본지는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2013년 새해는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세상 변혁을 위해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분야별로 다루려고 합니다.

개혁주의는 악한 세상 문화를 피하려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려는 적극적 문화관을 견지합니다. 구원은 단지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켜서 악이 창궐하기 힘든 세상, 그리고 복음 전파에 유리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28)"는 문화명령은 타락 이후에 노아에게도 계속되었고(창 9:1, 9:7), 예수님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는 명령을 통해 반복되었으며, 이 명령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더욱 복잡해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혁명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화는 인류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윤리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커즈와일 총장의 예측같이 2045년에 인간이 영원히 사는 시대가 열린다면 돈이 많으면 생명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산업화 시대는 끝났는데, 새로 올 세계의 모습은 아직 형체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바다에서 마실 물이 귀하듯이,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는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깊이 있는 성찰과 고민 끝에 나오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2013년 본지는 세상의 변혁을 위해 사고 형성에 가장 중요한 기둥인 정치, 경제, 교육, 미디어, 예술, 과학기술, 교회 및 가정 등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또 각 영역의 제자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분야별 모임이 중심이 되어 꾸며볼 것입니다. 새해 첫 호는 정치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이자 이사이다.